

갤러리, 문학관에 도예교실까지...

## 학교가 우리 동네 '문화쉼터'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주 지역 일부 고등학교들이 갤러리와 문학관을 개관하는 것은 물론 도예교실 개최, 무료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내 갤러리는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상설전시하고 기획초대전을 여는 등 상업갤러리 못지않은 수준 높은 전시문화를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남구 방림동에 있는 승의고가 최근 교내 다목적홀 3층에 개관한 화선갤러리에는 방림동 주민들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40여평 갤러리에는 박종택 재단 이사장이 소장한 한국화와 서양화를 상설전시하고 있다. 현재 현재 허백련, 남농 허건, 장전 하남호씨 등 한국화와 서예 대가들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승의고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화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임대하는 등 갤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간이 휴게공간도 갖추고 있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 문의 062-672-9915.

광산구 운남고는 복합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목련아트홀 시청각실에서는 매월 3째주 오전 10시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목련아트홀에는 목련갤러리는 기획초대전으로 주민들의 발길을 불자고 있다. 현재 죄영훈, 방의건, 박광식씨 등 지역 작가 14명을 초대해 '그림으로 만나는 꽃'전시를 열고 있다.



광주 승의고등학교가 교내 다목적홀 3층에 개관한 화선갤러리에서 주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승의고 제공>

김광우 담당교사는 "갤러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을에는 한국화 작품들을 모은 '수목의 향기'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960-3166.

광산구 신장동에 위치한 전남공고는 주민들이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 금요일 개강, 3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는 도예교실은 초급·중급반으로 나뉘 참여자

들이 생활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공고는 이를 위해 학내에 별도의 실습공간을 마련하고 전문강사를 초빙,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62-603-1200.

광주고등학교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교 출신 문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문학관 마련.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도서관 2층 110여평 공간을 리모델링한 광고문학관에는 광주고 출신 문인들의 사진과 작품집, 애장품, 육필 원고, 학교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